

# 2022 September

# Hana

#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8월 동향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가 시장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인식되며 향후 추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점증 속에 한은의 향후 물가 대응 정책도 매파성향으로 인식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한은 빅스텝 가능성과 연금 중앙은행의 빅스텝 단행 후 경기침체 경계에 하락 출발 후, 미 고용지표 개선이 금리인상 기조를 강화 할 것이라 전망에 상승 전환

미 7월 소비자, 생산자물가가 둔화 양상 보였으나, 7월 미 연준 의사록의 매파 스탠스 반영하며 상승 전환

한은의 베이비스텝 금리인상 후 매파적 스탠스와 파월 의장의 잭슨홀에서의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 재확인 등으로 글로벌금리 상승에 연동되며 3% 중반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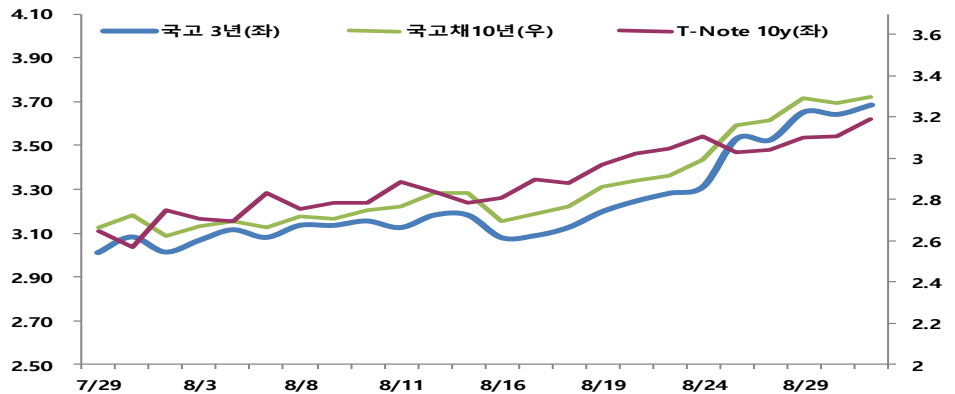
### 8월 평균

국고채(3년): 3.23%

T-Note(10년): 2.89%

- 8월 초, 한은의 물가 관련 빅스텝 가능성에도 영국 중앙은행 빅스텝 단행과 침체 경계 시사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미 7월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 강화 전망 속 상승 전환
  - 월 초,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가 빅스텝으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에도 영국 중앙은행의 빅스텝 단행 속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계 강화 등의 요인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는 하락 출발한 양상
  - 하지만, 미국 7월 고용지표가 개선세를 유지하며 기존 인플레이션 대응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강도가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냄
- 중반, 7월 미 CPI와 생산자물가 둔화에 따라 미 국채금리 하락 반영하며 이에 연동. 이어 중국 경기둔화를 반영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흐름 보인 후, 연준 7월 의사록의 매파적 스탠스 유지등을 반영하며 상승 흐름 전환
  - 월 중반, 미국의 7월 CPI가 전월 9.1%에서 8.5%로 감소한 가운데 생산자물가도 둔화세를 보이며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 반영 속 국고채 금리도 하락. 또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요인도 국고채 금리 하락을 견인
  - 그러나 이후, 연준의 7월 의사록이 시장 예상을 벗어나며 상당히 매파적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주요 연준 위원들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시사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전환
- 후반, 한은 25bp 금리인상 단행 후 총재 회견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 인플레이션 대응 매파적 기조 재확인 등으로 3% 중반을 강하게 상회하며 마감
  - 후반, 한은 25bp 금리인상이 시장예상에 부합했으나, 이후 총재 회견에서 미 통화정책의 단시일 종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한은 정책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언급의 매파적 인식으로 금리 상승 지속
  - 이어 8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도 기존 연준 위원들 매파 성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된 가운데 향후 추가 75bp 인상 가능성 우려 등이 반영되며 금리 상승 지속하며 마감

###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9월 전망

잭슨홀 이후 연준 추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과 이를 반영한 한은 매파적 기조 등이 국고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주요 경제권 중심의 침체 우려가 증대하는 요인 등은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23	3.13	3.6 <sup>(F)</sup>	3.5 <sup>(F)</sup>

잭슨홀 미팅 이후 9월 FO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확대 영향이 국내외 금리 상승의 주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

- 7월 FOMC 의사록의 매파적 결과 이후,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 매파 색채 강화에 따른 9월 FOMC 빅스텝 이상 금리결정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국내외 금리 상승에 주 모멘텀 될 전망이다
  - 연준의 3회 고강도 금리인상, 국제유가 90달러대 수준 지속 영향 반영으로 8월 미 CPI의 연속 감소 추세가 예상. 그러나 8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매파 성향 강화가 9월 FOMC의 75bp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국면이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반면, 빠른 미국 긴축 영향 및 한은 물가 대응 금리인상으로 2년물 금리는 상승하는데 반해, 10년물 구간이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장기구간에서의 금리 수준은 더딘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에너지 위기, 코로나 도시봉쇄 등으로 유로존과 중국에서 크게 확대되는 측면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글로벌 경기가 유로존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형국. 특히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중국 경기가 최근 경기부양책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를 통해 연준 정책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최근 글로벌 경기가 유로존 에너지 위기,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의한 성장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빠르게 가라앉는 모습. 특히, 중국 추가 도시봉쇄 실시로 경기부양 효과 상쇄 속에 하반기 큰 폭 성장 둔화 현실화 가능성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구간 금리 상단을 제어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강한 긴축과 한은 추가 금리인상 기조 등을 반영한 단기구간 금리 큰 폭 상승 속에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한 장기구간 금리의 상대적 상승세 제한으로 수익률 곡선의 편평한 정도는 심해질 전망이다

9월 국고채(3Y) 금리는 3.55%~3.90% 예상

- 대내적 중국 경기 둔화 영향 반영 등에 의한 무역수지 5개월 연속 적자 속 수출 증가율 둔화 지속 등으로 성장 전망이 낮아졌지만, 연준 통화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매파적 기조를 보인 한은 스탠스 등에 따라 금리 상승 기조가 우위를 보일 전망이다
  - 중국 경기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수입 물가 상승 등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 지속과 수출 증가율 둔화 속 국내 성장 전망이 2.6%로 낮아진 상황 등이 국고채 금리 상단을 일부 제한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연준 긴축 강화에 대한 경계감과 물가 상승 기조 대응 스탠스의 한은의 매파적 추가 금리 인상 기조 가능성 등으로 전반적인 국고채 금리의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월 FO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확대</li> <li>한은의 추가 베이비 스텝 경로에도 미 금리정책 경로에 따른 추가 빅스텝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로존과 중국 경기 불확실성 확대 지속</li> <li>미 7월 PCE 지표 둔화 속 8월 CPI 추가 감소 가능성</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8월 동향

한은의 금리인상과 외환당국의 경계감 강화에도 연준 7월 의사록 결과 및 잭슨홀 미팅의 초 강성 매파적 연준 의장 스탠스 등으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352.3원까지 연고점을 경신하는 상승 추세 속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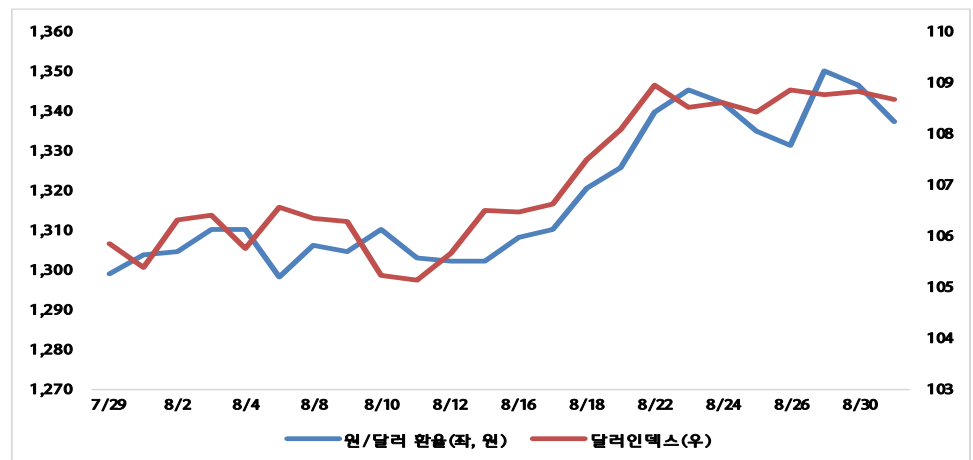
미-중 갈등 첨예화 등의 안전자산 선호 반영 속 미 7월 고용지표 개선이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강화할 것이란 영향 반영되며 상승 흐름 양상

미 7월 CPI 8.5% 감소에 환율은 1,300원 초반까지 하락. 이어 7월  $\rho$ FOMC 의사록의 매파 성향 재확인 속에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 반영하며 상승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초 강성 매파 스탠스에 환율은 1,350원대의 연고점을 경신하며 높은 환율 변동성을 나타낸 형국

- 월초,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에 따른 미-중 갈등 첨예화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 상승 출발한 환율은 7월 미 고용지표 강세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를 반영하며 추가 원화 약세를 보임
  - 월초,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에 따른 미-중간 갈등 확대가 안전자산 선호 반영하며 환율 상승 출발
  - 이어, 미국의 7월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긴축 기조 강화 가능성을 반영하며 원화 가치는 추가 약세를 보이며 환율 상승 추세 지속
- 월 중반, 미 7월 CPI 8.5% 감소에 따라 환율은 1,300원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이어진 7월 연준 의사록의 매파 성향 영향과 중국 경기부양에도 위안화의 초 약세에 연동하며 크게 상승
  - 중반, 미 7월 CPI가 전월 9.1%에서 8.5%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1,300원 초반까지 하락
  - 이후, 7월 FOMC 의사록이 CPI 감소세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의 2% 물가 목표 달성 시점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매파 성향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1,320원 상향. 여기에는 중국 경기불확실성 확대 속 위안화 약세 움직임도 원화의 동조화를 통해 환율 상승을 지지
- 후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대응 언급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초 강성 매파 성향을 보임에 따라 환율은 1,350원대를 넘어서며 연고점 경신
  - 후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 2% 목표 도달 시까지 더 높고, 오래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언급 속이 이를 시장이 9월 FOMC에서 75bp인상 가능성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환율은 1,350원을 상향
  - 이후, ECB 9월 빅스텝 가능성이 일시 달러 약세 견인한 형국이었으나, 잭슨홀 미팅 여진이 월 후반을 지배하며 높은 환율 변동성 보인 후, 추가 상승 제한 속 위안화 강세 연동하며 1,330원대 후반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8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19.6  
8월말 달러/원 환율 : 1,337.6

자료: 하나은행

## 9 월 전망

8월 잭슨홀미팅 이후, 연준 7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점증과 유로존, 중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달러 대비 통화 약세 영향, 대내적 경제 체질 약화 등으로 1,350원을 소폭 상향하는 움직임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205.7	1,259	1,330 <sup>(F)</sup>	1,315 <sup>(F)</sup>

미국 8월 CPI 연속 감소 추세 전망되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위한 9월 FOMC 75bp의 금리인상 경로 강화 움직임으로 달러 강세 기조 우위 예상

- 미국 7월 PCE 물가가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8월 CPI도 감소 추세가 예상. 그러나, 이미 연준의 연말까지의 2%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 강화 기조 등으로 9월 FOMC에서 75bp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영향이 월중 달러 강세 견인하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7월 PCE 물가가 전년대비 하락 추세를 이어간 가운데 그간 연준의 강한 긴축 영향으로 8월 CPI도 감소가 예상. 그러나 최근 에너지가격 재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소폭 상승 등으로 폭은 작을 전망
  - 따라서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할 가운데 잭슨홀 이후, 강성 매파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을 시장이 반영하며 빅스텝 이상 금리정책 가능성 등으로 월중 달러 강세 이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회피 지속 등으로 환율은 점진적 상승 기조 우위 예상

유로존, 중국 경제권역의 경기 하강 위험 증가에 따른 통화 약세 영향이 달러 강세 확대를 통해 원화가치 약세를 간접적으로 견인할 전망

- 주요 경제권역의 경기불확실성 확대 우려 속에 달러 대비 상대적 통화 약세 움직임 등의 달러 강세 지지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도 원화 약세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
  - 최근 유럽 물가 상승세에 따라 ECB 9월 빅스텝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로화의 패리티 수준 회복 속 일시적 달러 약세 견인. 하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 에너지 위기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국면에 따른 유로화의 달러 대비 큰 약세 지속 가능성 등이 달러 강세를 지지할 전망
  - 또한, 중국 경제 역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른 경기부양책에도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 속에 위안화의 약세 기조 등이 원화의 동반 약세를 견인하며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9월 달러/원 환율  
1,330 ~1,360원 예상

- 대내적 8월 무역적자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성장 엔진인 수출 경기 둔화 등이 원화 가치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만, 물가 상승세에 따른 한은의 남은 정책에서의 빅스텝 가능성 및 1,350원 이상에 대한 당국 경계감 강화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국내 무역적자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수출 성장세도 주춤하는 양상 등이 달러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통해 원화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대외 연준 긴축 강화에 따른 한은 추가 금리인상 기조 지속 가능성 속, 경우에 따라 빅스텝 여지도 재소환될 수 있는 측면과, 1,350원 상회 수준에서의 외환당국 경계심리 강화 등이 상단을 제한할 전망. 여기에 추석 연휴 관련 달러 매도 강화 요인도 월초 상승 압력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 위원 전원의 매파 성향 강화 확인에 따른 9월 75bp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li> <li>· 주요국 통화가치의 달러 대비 상대적 약세 흐름</li> <li>· 대내적 무역수지 적자 흐름 지속 등 경제체질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8월 CPI의 추세적 감소세</li> <li>· 한은의 2회 정책에서의 물가 대응 빅스텝 가능성 상존 등 매파 성향 유지</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잭슨홀 미팅 이후 강화된 미 긴축 영향 속 미-일 금리차 확대와 BOI의 초완화정책 지속 전망 등으로 엔화는 140엔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

8월 달러/엔 평균환율 : 135.4  
8월 엔/원 평균환율 : 974.7

9월 엔/원 예상범위 : 960-980원

- (엔화동향) 미 경기침체 반영한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엔화 강세 출발. 하지만 이어 미 고용 지표 개선 등이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 전망 속에 연준 매파 강화 지속 등으로 약세 전환. 중반 미 CPI 감소로 재차 엔화는 강세를 나타냈으나, 7월 연준 의사록에서 기존 정책 경로보다 강화될 가능성 등으로 약세 흐름 재전환. 이어 후반 들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성 매파 발언에 미 국채금리 급등 영향 등을 반영하며 138엔 중반 마감
- (엔/원 전망)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보다 긴축적 스탠스로 강화된 연준 매파 성향이 9월 FOMC에서 75bp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인 가운데 미 국채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 등의 영향이 엔화 약세를 견인할 전망. 여기에 초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BOI스탠스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엔화는 140엔 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엔/원 환율은 달러 초강세 속에 완화적 기조의 강화를 유지하는 엔화의 상대적 약세 속에 950원 후반에서의 흐름 예상
  - 8월 잭슨홀 미팅에서의 보다 긴축적으로 전환된 연준 스탠스에 9월 FOMC에서의 75bp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 등이 엔화 약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일본 내부적 초완화 지속 고수의 통화정책 영향 등으로 엔화는 140엔 상향이 예상. 이에, 엔/원 환율은 달러 초강세가 양 통화의 약세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본의 완화 기조 지속 대비 한은 금통위 매파 성향 등에 따른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상대적 원화 강세로 950원 후반 흐름 전망

## 유로/원 전망

**미 8월 CPI 추세적 감소 가능성, ECB 빅스텝 금리 인상 경로 예상에도 연준 매파 성향 강화에 따른 9월 자이언트스텝 가능성과 에너지지출 하반기 유로 경제 불확실성등으로 유로는 등가 수준 이하 약세 예상**

8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12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35.7

9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15~1,345원

- (유로화 동향) 주요국 경기침체 우려 반영한 달러 약세에 강세 출발. 이어 연준 매파적 기조 지속에도 7월 CPI 하락으로 강세 흐름 지속. 중반, 미 인플레이션 감소에도 2% 목표까지 긴축을 강화하겠다는 매파적 연준 기조에 약세 전환 후, 7월 FOMC 의사록의 매파적 결과에 대비 등가 수준까지 하락. 후반, 미 잭슨홀 미팅 결과가 상당한 매파 기조를 띤 가운데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문제에 따른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 대비 등가 수준 마감
- (유로/원 전망) 잭슨홀에서 추가 금리인상 경로 강화 가능성 시사에 따른 연준 매파 스탠스와 전쟁 영향의 지속에 의한 에너지 위기 확대 속 유로 경제 하반기 불확실성 증대 등이 달러 대비 등가 수준 이하로 유로화의 초 약세 기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8월 CPI 점진적 감소세 가능성과 ECB 인플레이션 대응 빅스텝 경로 가능성 등에도 잭슨홀의 매파 성향 강화에 따른 9월 FOMC 자이언트 스텝 점증 영향이 유로 약세에 유의적으로 영향 미칠 전망
  - 여기에 전쟁에 의한 유로존 에너지 위기 확산이 하반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도 유로 약세요인으로 보이는 가운데 등가 수준의 큰 폭 하회 가능성에 유로/원 환율은 1,330원 전후 흐름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년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한 GDP (전년동기대비) (0.7%) 무역수지 (-\$4,670m) 미 Challenger Job Cuts YoY (36.3%)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4.6%)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51.3) 유 S&P Global Eurozone Manufacturing PMI (49.7) 실업률 (8.1%) 영 기업 이익 YoY (13.7%) 일 자동차 판매 YoY (-13.4%) 중 지이신 중국 PMI 종합 (55.5)		한 CPI (전년대비) (6.3%) CPI 근원 YoY (4.5%) 미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528k) 실업률 (3.5%) 유 PPI 전월비 (1.1%) PPI 전년비 (35.8%)	
				4	5	6	
	한 외환보유고 (\$438.61b) 유 S&P Global Eurozone Services PMI (50.2) S&P Global Eurozone Composite PMI (49.2) 소매판매 YoY (-3.7%)	미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업 PMI (44.1)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45) 호 RBA 목표금리 (1.85%) BoP 경상수지 (AUD 7.5b)	한 BoP 경상수지 (\$5,609.8M) BoP 상품수지 (\$3,593.9M) 지준율 미 무역수지 (-\$79.6b) 유 정부지출 전분기대비 (-0.3%) 중 고정자본 전분기대비 (0.1%) 고용 YoY (2.4%) 중 외환보유고 (\$3,104.07b) 무역수지 CNY (682.69b)	8	9	10 추석	
				한 은행 가계대출 총 (KR 1,060.5t) 금통위 정기회의 미 Powell Speaks at Monetary Policy Conference 유 ECB 단기수신금리 (0.00%) ECB President Christine Lagarde Holds Press Conference <b>유로존 ECB 기준금리</b> 일 BoP 경상수지 (-¥132.4b)	미 도매무역 판매 MoM (1.8%) 도매 재고 전월비 (0.8%) 소비자신용지수 (\$40,154b) 중 PPI 전월비 (4.2%) CPI (전년대비) (2.7%)	미 기계 순자산변동 (-\$544b)	
11 추석	12 추석(대체)	13	14	15	16	17	
한 한국은행 Minutes of Aug Policy Meeting 영 광공업생산 YoY (2.4%)	미 CPI (전년대비) (8.5%) CPI 주요지수 SA (295.275) 주간 평균 실질 소득 YoY (-3.6%) 일 PPI YoY (8.6%)	미 CPI (전년대비) (8.5%) CPI 주요지수 SA (295.275) 주간 평균 실질 소득 YoY (-3.6%) 일 PPI YoY (8.6%)	미 월간 재정수지 (-\$211.1b) PPI 최종수요 MoM (-0.5%) PPI 최종수요 YoY (9.8%) 유 산업생산 WDA YoY (2.4%)	미 소매 판매 (자동차 및 가스 제외) (0.4%) 제조업 (SIC) 생산 (0.7%) 기업재고 (1.4%) 광공업생산 MoM (0.6%) 수출물가지수 YoY (13.1%)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1.4%)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6.2) 유 노동비용 YoY (3.2%) 무역수지 SA (-30.8b) 영 영란은행 기준금리 (1.75%)	한 수출물가지수 YoY (-2.1%)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27.9%) 실업률 SA (2.9%) 통화규모 L SA 전월비 (-0.2%) 미 미시간대학교 1년 인플레이션 (4.8%) 미시간대학교 5-10년 인플레이션 (2.9%) ECB's Rehn Speaks at BoF, CEPR Conference on Monetary Policy 유 CPI (전년대비) (8.9%) 중 소매판매 YoY (2.7%)	미 총 순TIC 흐름 (\$22.1b)	
18	19	20 美 FOMC 회의	21 美 FOMC 회의	22	23	24	
미 NAHB 주택시장지수 (49) 유 건설 생산 YoY (0.1%)	미 건축여가 (1674k) 주택착공건수 (1446k) 유 ECB 경상수지 SA (4.2b) 일 전국 CPI (전년대비) (2.6%)	미 건축여가 (1674k) 주택착공건수 (1446k) 유 ECB 경상수지 SA (4.2b) 일 전국 CPI (전년대비) (2.6%)	미 수출 20일 전년대비 (3.9%) 수입 20일 전년대비 (22.1%) 미 기준주택매매 (4.81m)	한 금통위 금융안정회의 미 FOMC 금리 결정 (상한) (2.5%) FOMC 금리 결정 (하한) (2.25%) Fed Chair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Meeting 일 9월 금정위	한 PPI 전년비 (9.2%) 미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업 PMI		
25	26	27	28	29	30		
한 소매판매 YoY 미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0.27)	한 소비자심리지수 (88.8) 미 신규주택매매 (511k) 유 M3 통화규모 전년비 (5.5%) 일 PPI 서비스 YoY (2.1%)	한 소비자심리지수 (88.8) 미 신규주택매매 (511k) 유 M3 통화규모 전년비 (5.5%) 일 PPI 서비스 YoY (2.1%)	미 소매재고 전월대비 (1.1%) 상품무역 선금금 잔고 (-\$89.1b)	한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82) 미 GDP 연간화 QoQ (-0.6%) CPI 물가지수 (8.9%) 경상수지 (-\$291.4b) 선행지수 (-0.4%)	한 광공업생산 YoY 미 개인소득 (0.2%) 개인소비지수 (0.1%) PCE 근원 디플레이터 YoY (4.6%) 유 CPI 예상 YoY 영 수출 QoQ (2.4%) 수입 QoQ (-1.5%) 일 소매판매 YoY 중 종합 PMI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잡정지, [F]-확정지,  
[SA]-계절조정,  
[A]-예고지, (O)안은 이전지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